

- 주요 뉴스: 트럼프,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 시사. 유가 안정 위해 존스홉킨스 유예 연장
 - 美 법무부,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종료. 백악관, 차기 연준 의장 신속 인준 요구
 - 국제에너지기구(IEA), 중동전쟁 여파로 3월 LNG 생산량 8% 감소
 - 미국 재무장관, 상설 통화 스와프 라인 확대에 긍정적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 기대감, 인텔 실적 호조 등이 영향
 - 주가 상승[+0.8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美-이란 협상 기대감과 기술주 강세로 역대 최고치
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전쟁 불확실성 등으로 0.6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美-이란 협상 및 워시 후보자 인준 기대 등으로 하락
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는 0.2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종료 소식 등으로 하락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, 기업환경지수 악화 등으로 -2bp
- ※ 뉴욕 1M NDF 증가 1475.1원(스왑포인트 감소 시 1476.4원, 0.6% 하락). 한국 CDS 약보합

		4/24일	4/23일	전일대비			4/24일	4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7,165.1	7,108.4	+0.80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0%	4.32%	-2bp
	유럽	610.65	614.20	-0.58%		독일	2.99%	3.01%	-2bp
	중국	4,079.9	4,093.3	-0.33%		영국	4.91%	4.94%	-3bp
	일본	59,716	59,140	+0.97%	CDS 5y	한국	29bp	29bp	0bp
	한국	6,475.6	6,475.8	-0.003%		중국	45bp	45bp	0bp
환율	달러지수	98.53	98.77	-0.24%	위험 지표	EMBI+	258	254	+4bp
	유로화	1.1722	1.1683	+0.33%		VIX	18.71	19.31	-3.11%
	엔화	159.38	159.71	+0.21%		WTI유	94.40	95.85	-1.51%
	위안화	6.8320	6.8313	-0.01%	원자재	구리	602.7	608.2	-0.90%
	원화	1,484.5	1,481.0	-0.24%		금	4,709.5	4,694.1	+0.3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 대통령,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 시사. 유가 안정 위해 존스법 유예 연장

-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먼저 대면회담을 요청해 왔으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25일 오전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고,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회담이 27일 열릴 수 있다고 보도
- NYT는 익명의 이란 당국자를 인용하여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위트코프 특사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. 다만 이란 국영매체는 일각의 추측과 달리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 측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보도
-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 선박에 미국 항구 간 운송 독점권을 부여하는 존스법의 유예 조치(5.17일 만료)를 90일 연장
- 이란 반정부 성향 방송사인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이 최근 대미 협상단 대표직을 사임했으며, 초강경파인 잘릴리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이 갈리바프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도
- 한편,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\$3.44억 규모의 암호화폐를 동결. 벡슨트 재무장관은 이란과 연계된 여러 지갑을 제재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, 재무부는 추가 동결 가능성을 시사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美 법무부,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종료. 백악관, 차기 연준 의장 신속 인준 요구

- 수사를 주도해 온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연준 감찰관이 청사 개보수 초과 지출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,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종료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
-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것이 사건 수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,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

■ 국제에너지기구(IEA), 중동전쟁 여파로 3월 LNG 생산량 8% 감소

- 대규모 공급충격이 시장 기초 여건을 교란하고 예상되던 신규 LNG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, 내년까지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■ 미국 재무장관, 상설 통화 스와프 라인 확대에 긍정적

- 베네통 장관은 상설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것은 걸프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달러 펀딩센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며, 달러 지배력과 기축통화 지위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된다고 평가

■ 미국, 이란전쟁에 비협조적인 나토 동맹 제재 검토

-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스페인을 나토에서 자격 정지시키거나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. 다만 나토 탈퇴나 유럽 내 미군기지 폐쇄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언

■ 캐나다, 아시아 지역으로의 LNG 수출 인프라 확대 사업 승인

- 에너지천연자원부는 에너지기업 엔브리지가 주도하는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기존 천연가스 수송 시스템 확장 사업(약 4.3조원)을 승인. 이를 통해 이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하루 최대 3억 입방피트 증가할 전망

■ 독일 4월 IFO 기업환경지수 84.4로 '20년 5월 이후 최저

- 이는 전월(86.3)과 예상치(85.5)를 하회하는 것으로 기업들은 중동 위기로 현재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몇 달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

■ 이탈리아 올해 부채비율 그리스를 넘어 유럽 최고 전망

- 최근 발표한 예산계획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작년 137.1%에서 올해 138.6%로 전망.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이 반영된 결과

■ 미국-EU, '가격 하한' 모색 등 핵심광물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
-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EU 통상·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.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왜곡해 온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려는 공동된 의지를 확인했다며 가격하한 등 국내 핵심광물 사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

■ 구글, 앤스로픽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최대 \$400억 투자 계획

- Bloomberg에 따르면 구글은 우선 \$100억을 투자하고 향후 성과 목표를 충족할 경우 \$300억을 추가로 투입. 투자와 함께 향후 5년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5기가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등 컴퓨팅 인프라 확장도 지원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